

수영·무용 어우러진 '수중발레'...10개 종목 경연

알고 보면 더 재미 있는 세계수영대회

① '아티스틱 수영'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회는 세계 각국 선수들이 참가해 경영, 다이빙, 아티스틱 수영 등 모두 6개 종목에서 경기가 치러지며 다양한 문화행사 등이 펼쳐진다. 각 종목별 관전 포인트와 각종 문화행사 등 볼거리와 즐길 거리 등을 연재한다.

아티스틱 수영은 수영과 무용이 어우러진 '수중발레'로 불린다. 음악 반주에 따라 표현의 아름다움과 기교를 겨루는 경기다. 2015 카잔 세계대회에서 남녀 혼성 2인조 경기인 '혼성 듀엣'이 추가된 이래, 2017 부다페스트 세계대회에서는 명칭도 기존 싱크로나이즈드 수영에서 아티스틱 수영으로 변경됐다.

아티스틱 수영은 수영, 무용과 음악이 어우러져 수중 발레 또는 예술 수영으로도 불리는 종목이다.

아티스틱 수영은 20세기 초 장거리 수영 선수이자 다이빙·발레리나였던 아네트 켈러만(호주)에 의해 싱크로나이즈드 수영

2015년 남녀 혼성 듀엣 추가

프리·테크니컬 루틴 구분

1973년 대회 정식종목 채택

러시아·미국·캐나다 강세

으로 시작했다. 뉴욕의 곡마장 대형 유리 탱크에서 원피스 수영복을 입고 한 공연으로 인해 인기를 얻었다.

2003년 솔로, 듀엣, 팀 안무를 포함하는 프리 루틴 콤비네이션이 추가되고 2005년 프리 콤비네이션으로 종목명이 변경됐다.

2007년에는 솔로, 듀엣, 팀 경기가 테크니컬 루틴과 프리루틴으로 나누지며 2015년부터 혼성 듀엣이 추가됐다.

아티스틱 수영은 다음달 12일부터 20일까지 광주시 서구 영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다. 아티스틱 수영은 인원수에 따라 솔로와 듀엣, 팀과 프리 콤비네이션, 하이라이트 루틴 등 10개 종목으로 나뉘어 경기가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는 모두 10개 금메달이 걸려있다.



2019 FINA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최근 13년만에 재결성된 아티스틱 수영 국가대표 선수들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출전을 대비해 연습하고 있다.

아티스틱 수영은 1973년 대회부터 FINA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물 속과 물 밖에서 도약과 연기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동작이 일치가 되며 음

악에 맞춰서 흐름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됐을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여성들만 참가하는 종목으로 알려진 아티스틱수영에서 남자 선수들의 연기도 볼 수 있다.

카잔 대회에서 남녀 혼성 2인조 경기인 '혼성 듀엣' (Mixed Duet) 종목이 새로 추가됐다. 당시 규정종목(테크니컬 루틴)에서는 미국의 빌 메이-크리스티나 존스가,

자유종목(자유 루틴)에서는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말체프-다리나 발리토타가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아티스틱 수영 남자 등록선수가 중·고교 1명씩뿐이어서 혼성 듀엣 종목에 출전하지 않는다. 나머지 아티스틱 종목에서는 여자들만이 경쟁하고, 한국도 출전권을 얻었다.

러시아와 미국, 캐나다, 중국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팀이 다크호스로 꼽히고 있다.

러시아 국적의 스베틀라나 콜레시니첸코와 알렉산드라 파츠케비치를 주목해야 한다.

2016년 제31회 리우 올림픽 팀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스베틀라나 콜레시니첸코(25)는 지난대회 4관왕(솔로 테크니컬 루틴, 솔로 프리 루틴, 듀엣 테크니컬 루틴, 듀엣 프리 루틴)했던 좋은 기억을 살려 대회에 출전한다.

지난대회 솔로 테크니컬 루틴, 듀엣 테크니컬 루틴, 듀엣 프리 루틴 부분에서 금메달 알렉산드라 파츠케비치(30)도 다시 다관왕에 도전한다.

역대 메달 순위로는 러시아가 57개로 1위, 일본(44개) 2위, 스페인(38개)로 3위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가난 하다고 모두가 기생충은 아니다



김은영의 '그림 생각'

(271) 기생충

화제의 영화 '기생충'을 관람하고 나서 감동이 켜졌던 '소주 한잔' 대신 '맥주 한잔'을 마셔야 했다. 잘 만들어진 영화라는 생각이 들지만, 영화가 슬프고, 씁쓸하고, 무서웠기 때문이다. 감상평을 한마디로 줄이자. 부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모두 기생충인가 하는 극단적인 비애감을 갖게 하는 영화라고, 나는 보았다.

영화에는 세트가 잘 만들어진 반지하가옥이 즐비한 동네가 나온다. 서울에는 실제 그런 동네가 지금도 있을 것이다. 서민들의 주거지를 배경으로 다양한 인간 군상이 가득 담겨있는 그림 한 점과 영화를 동시에 떠올리면서, 그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삶은 숙주 곁에 들러붙은 기생충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자기 할량껏 부단히 노력하는 거룩한 존

재라는 생각을 새삼 해본다.

최호철 작가(1965~)의 '2010년 북아현 뉴타운 개발지구' (2010-2016년 작)는 젊은 시절 작가의 작업실이 있었던 북아현동이 재개발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기 시작한 작품으로 주택가의 좁은 골목길을 따라 굽이굽이 사람과 사람의 삶이 연결되고 서민들의 고달프지만 소소한 일상이 사실적이고 세밀한 묘사로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멀리 보이는 재개발 아파트, 그 뒤로 북한산, 중간의 철길 등 개인과 세대의 삶이 함께하는 공간과 기억이 켜켜이 묻어난다.

'7년에 걸쳐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림에 나오는 동네 절반이 없어져 뉴타운으로 개발되었다'고 말하는 작가는 "한 개인의 기억과 공간이 송두리째 사라지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그림에 등장하는 서민들을 그림 속에서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삶의 가치를 지니고 살아가는 공간의 주인, 세상의 주인공으로 그리고 싶었다"고 들려준다.

20대 때 '전태일 평전'을 읽고 감화를 받아 청계피복노조원과 야학교사로 활동하며 전태일의 일대기를 만화로 그렸



최호철 작 '북아현 뉴타운 개발지구'.

던 작가는 현재 회화, 만화, 일러스트레이션, 애니메이션 등 현대 시각문화의 거의 모든 장르를 통해 우리 시대 풍속을 그려오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학예연구관·미술사박사>

이재용·이순자·김현철...故이희호 여사 이틀째 조문 행렬

추귀홍 중대사도 유가족 위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조문 돌때날인 12일 이 여사의 빈소에 추모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조문 첫날인 전날보다는 다소 차분한 분위기의 빈소에는 이른 오전부터 정지권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발걸음을 해 고인에게 조의를 표했다.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빈소를 찾았다.

수행원들을 대동하지 않고 홀로 빈소를 찾은 이 부회장은 방명록에 한자로 자신의 이름을 적고 고인의 영정 앞에 헌화를 하고 머리를 숙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등 전직 대통령 가족들도 이른 오전부터 빈소를 잇따라 찾았다.

이날 오전 9시45분께 모습을 드러낸 현철씨는 조문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여사님에게 신년이 되면 인사드리러 왔는데 병세가 이렇게 나빠진 줄은 몰랐다"며 "깊이 애도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순자씨는 이어 오전 9시50분께 빈소를 찾아 조문을 하고 유가족들과 악수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고(故) 이희호 여사의 빈소에서 조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추귀홍(邱貴洪) 주한 중국대사도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이 여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경 의원은 "추대사가 유가족들에게 '이희호 여사님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대모셨다. 한중관계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해주신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감사드리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에는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총리도 조문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오세정 서울대 총장의 모습도 보였다. 정지권 인사들의 발길도 여전히 이어졌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유성엽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전날에 이어 재빈소를 찾았다.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는 유가족 등이 자리한 가운데 입관 예배가 열렸다. /연합뉴스

가까운 무안에서 출발해요~ 이제 편리하게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푸~우~욱~

믿고가는 조이투어에서 여름휴가! 떠나세요~!♥

무안 ↔ 후쿠오카 큐슈 최대 도시

매주 월,수,금,일 출발

◆ [2박3일] 399,000원~ / [3박4일] 699,000원~

무안 ↔ 오이타 살랑~살랑 뽀빠리 타고

매주 월,수,금 출발(최소인원 7명 이상 출발보장)

- ◆ [6/19일 출발] 초특가 뱃부&유후인 3일 349,000원~
- ◆ [월/수 출발] 오이타 뱃부&유후인 3일 399,000원~
- ◆ [금 출발] 뱃부&유후인&야나가와 뱃놀이 4일 699,000원~

무안 ↔ 동경 매일출발 일본의 수도 도쿄를 무안에서!

★최저모객인원 7명 출발보장★

- ◆ [정통] 동경&하코네 3일(디즈니랜드선택관광) 799,000원~
- ◆ [정통] 동경&하코네 4일(디즈니랜드선택관광) 949,000원~

*6월요금기준 (성수기 별도문의)

특가 & 집중모객

- ◆ 오이타 초특가 6/19일 출발 349,000원!!
- ◆ 다낭/실속/풍경 & 대만/단수이/화련 3박4일 특가 469,000원~
- ◆ 상해/장가계 6/22,26일 한정특가 899,000원~
- ◆ 마카오/홍콩/심천 2박4일or3박5일 특가 499,000원~

무안 ↔ 몽골 거적은, 상품질은!

★6월 15일 ~ 8월 28일 까지(매주 수,토 출발)★

- ◆ [수요일] 4일 1,098,000원~ / [토요일] 5일 1,148,000원~
- ◆ [항공+호텔] 4일 649,000원~ / 5일 699,000원~
- ◆ [항공] 무안→울란바토르 편도 25만원 / 왕복 50만원 *몽골인에만함
- ◆ [항공특가] 6/15 출발 울란바토르→무안 편도 18만원

무안 ↔ 대만 정기편(제주항공)

매주 월,화,수,목,금,토,일 매일출발 3박4일

- ◆ [타이베이일주] 스펀,단수이,야류,지우펀 579,000원~
- ◆ [화련] 화련,태로각,지우펀,야류 629,000원~

무안 ↔ 나트랑(젯스타항공)

7월 28일부터 총 6항 출발

[목요일출발] 4일 / [일요일출발] 5일 699,000원~

무안 ↔ 달랏(비엠텐항공)

7월 24일 ~ 3월 28일 까지(매주 수,토 출발)

[수요일출발] 4일 / [토요일출발] 5일 749,000원~

무안 ↔ 다낭(베트남항공&제주항공)

[베트남항공] 매주 화,금출발 / [제주항공] 매일 출발

[다낭&호이안&후에] 649,000원~

무안 ↔ 블라디보스톡(제주항공)

◆ [월,수,토,일요일출발] 블라디+우수리스크 4일/5일 779,000원~

◆ [월,수,금요일출발] 블라디+연길 5일/6일 1,149,000원~

*모든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 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양곡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오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 제등다2003-1호
◆ 공동조건 : 여행기간 1인 기준, 여행보험 가입(해상보험) : 1억원, 국내보험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 및 부수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 지역 ◆ 상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금제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취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 경비(항공료, 기차/기타의 통사료, 선박료,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JOY TOUR